(사)성무안보연구소, 제6회 안보학술세미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설 (사)성무안보연구소(이사장 황성진)는 7월 2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제6회 안보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공군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렸으며,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일선 작전요원, 공사 생도, 산·학·연 관계자 등이 대거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군의 AI 활용 트렌드를 조망하고, AI 기술이 미래 공군의 전략·조직·비행 등에 가져올 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토의했다.



연구소 측은 "진정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현장 경험과 산·학·연 전문성의 융합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군사랑회 네팔 홍수 수재의연금 전달

공군사랑회(회장 서용길. 학사 55기 예중령)가 지난 10월 1일 서울 성북구 주한네팔대사관을 방문, 네팔 홍수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위로금 4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네팔의 천재지변과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하기 위해 공군사랑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

이날 공군사랑회 회원들은 주한네팔대사관을 방문, "제님 아디카리(Xenim Adhikari). 이동서기관, 마이야 꺼델(Maiya Kadel)노무관 등 대사관 관계자에게 수해의연금 400만원을 전달하고, 홍수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서용길 회장은 "네팔 홍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며 "이번 모금에 뜻을 모아주고 협조해 주신 모든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부사관전우회 정기총회

본회부사관회(회장 차주성)는 8월 22일, 오송식당에서 정기총회를갖고 1년 간의 모든회무를 처리하였다.

30여명이 모인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감사장 전달 및 수여와 신입회원 소개, 회장 인사 순으로 진행하였고, 2부에서는 경과보고, 감사보고, 회계보고에 이어 결산안 및 사업계획 토의 의결 순으로 실시하였다. 차회장은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의 응



원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였다.

정수 회원, 성남 YMCA 이사장 취임

정수 회원(공사 30기, 예비역 준장)이 7월 3일, 성남시청 한누리실에서 원복덕 이사장의 뒤를 이어 성남 YMCA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정수 신임 이사장은 "꿈이 없으면 핑계를 찾는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룰수 없다." 며 지역사회와 시민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 및 시대에 맞는 시민운동을 강조하였으며, 취임식에서 밝힌 공약대로 맘스커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건강한 감정 소통 및 분노조절 문화 확산에 협력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수 회원은 예편 이후 ADD(국방과학연



구소) 전문위원, 아주대학교 특임교수, 성남월드휴먼브리지 이사장 및 로뎀청소년학교 이사장 등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10월 8일 서울 코엑스 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제74주년 재향군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정부 주요 인사와 참전유공자, 주한미군, 청년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호국안보 의지를 되새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 책무를 강조했고, 신상태 향군회장은 안보의 제2보루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유공자 포상과 세대통합 행사도 함께 진행하였다. 기념식 후 향군은 '북한 DMZ 지뢰 도발 규탄대회'를 열고 북한의 중대한 무력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군의 완벽한 대비태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결의했다.

이영하 회원, 한국세계문학협회장 취임

본회 이영하 회원(공사 22기, 전 공군참모차장/주 레바논 특명대사)이 8월 1일, 사단법인 한국세계문학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문학을 통한 포용과 사회통합의 새 장을 열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 개개인을 보석처럼 존중하며 서로를 빛내는 따뜻한 문화공동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특히 다문화 가정 등 소외된 이들에게 존엄성을 찾아주는 '사람나비' 운동을 전개하여, 문학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또한 이회원은 9월에 HK 한국문학상을



수상한데 이어 국민권익신문사에서 개최한 2026년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되었으며, 10월 10일에는 시와 창작 최우수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6 공사총동창회 걷기대회 성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9월 15일 모교의 옛 터전인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2026 친목 걷기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쾌청한 가을 하늘 아래 옛 교본부 앞 에어파크 광장에 집결한 동문들은 둘레길과 호수 일대를 함께 걸으며 옛 생도 시절의 추억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역대 참모총장과 원로 선배부터 후배 기수까지 폭넓게 동참해 계급과 기수를 넘어 오직 '성무인(星武人)'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뜻깊은 화합의 장을 이뤘다.

걷기 일정을 마친 동문들은 원내 호국사교육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모교에 얽힌 기억과 우정을 되새겼다.

특히 참석 동문들은 사관학교 통합 논란 등 쉽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행사를 마칠 때 교가를 함께 부르며 굳건한 동문애로 영공 수호의 성무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AI 혁명시대에 더 필요해진 심리학

윤은기 (예 중위, 학사70기, 공군정책발전자문위원장)



AI혁명과 함께 심리학의 활용무대가 크게 넓어지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디지털 헬스케어 등 첨단산업 곳곳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왜 그럴까?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진다. 사람은 무엇을 편리하다고 느끼는가. 무엇을 믿고 의심하는가. 왜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거부하는가. 언제 AI에 의존하고 왜 불안해하는가. 이것은 공학만으로 풀 수 없는 심리학의 영역이다.

고려대학교가 2021년 문과대학 소속 심리학과를 독립시켜 단과대학 수준의 심리학부로 전환한 것도 상징적인 변화다. 오늘날 심리학은 뇌과학, 인공지능, 데이터과학, 사용자 경험(UX), 조직행동 등 다양한 분야와 빠르게 결합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흥미롭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의 심리적 영향(Psychological Influences of AI)'이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생성형 AI가 인간의 인지, 감정, 행동과 웰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고 있다. AI에 대한 신뢰와 의존, 인간의 주도권, AI를 사람처럼 느끼는 의인화 현상까지 연구 대상이다.

구글도 인간과 AI의 협업을 연구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76명을 대상으로 대화형 AI 사용과 생산성·신뢰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사용자의 숙련도와 과제에 따라 효과가 달랐으며 AI의 판단을 지나치게 받아들이는 '자동화 안일성(automation complacency)'도 관찰됐다.

세계적인 AI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함께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I의 성능을 높이는 것만큼 인간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기술수준만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 감정과 습관, 신뢰와 불안이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첨단기술일수록 심리적 장벽이 높아진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아닐까?" "개인정보는 안전한가?" "AI가 틀리면 누가 책임지는가?" "AI를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가?"

이러한 불안과 의심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외면받을 수 있다.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바로 이 간격을 메우는 학문이 심리학이다.

AI시대 심리학의 효능은 구체적이다.

첫째, 신뢰를 설계한다. AI를 불신해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믿어도 위험하다. 적절한 신뢰 수준을 형성해야 한다.

둘째, 사용자 경험을 개선한다. 무엇이 편리하고 불편한지, 언제 친밀감과 거부감을 느끼는지를 알아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셋째, 인간의 선택과 행동을 이해한다.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감정과 습관, 편향과 사회적 영향이 판단에 개입한다.

넷째, AI 과잉의존을 방지한다. AI가 유능해질수록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기계의 답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위험도 커진다.

다섯째, 인간과 AI의 협업능력을 높인다.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과 AI가 서로의 장점을 살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심리학은 첨단기술의 효능을 높이고 시장에서 성공하도록 돕는 실용학문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AI기술의 마지막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이해다.

백범 김구와 'K-컬처'

황태인 (예 중위, 학사70기, ㈜루츠템 회장)



올해는 겨레의 큰 스승 백범 김구 白凡 金九(1876.08.29~1949.06.26) 선생의 탄생 150주년 되는 해이다.

유네스코(UNESCO)는 2026년을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의 해(150th anniversary of the birth of Kim Koo'로 공식 지정했다. 유네스코는 "백범 김구 선생은 해방 이후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높은 문화의 힘'을 통해 인류 전체에 행복을 주는 '문화국가'를 꿈꾸었다.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인류 불행의 원인을 인의(仁義)와 자비(慈悲), 사랑의 부족'으로 보고 문화를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했던 김구 선생의 사상철학과 맞닿아 있다"며 공식 지정 취지를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 종로구 경교장(京橋莊)에서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특별전'을 열었다. 이번 특별전은 백범 김구가 생애 마지막을 보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경교장을 중심으로 그의 삶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조명하는 자리로 많은 사람들이 관람하고 회고하였다.

일찍이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김구 선생은 스물한 살이던 1896년 3월 명성황후 시해 용의자 '쓰치다 조스케'를 죽이고 사형선고를 받고 인천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1898년 3월에 탈옥하여 스물셋의 나이로 현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주시 태화산(太華山) 마곡사(麻谷寺)로 은신하여 원종(圓宗)이라는 법명을 받고 스님이 되었다. 그는 출가 동기로 '살인, 도망자, 무상'이라고 했다. '쓰치다'를 살해할 때 두려움이 앞섰으나 "가지 잡고 나무에 오르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천길 벼랑에서 잡은 손을 놓는 것이 가히 대장부다."라며 결행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1년간 승려로 지낸 불교와의 인연으로 만해 한용운, 만공 송도암, 구하 천보, 오성월 스님들과의 비밀교류로 이들이 보내준 불교계의 독립자금을 결집, 임시정부 활동에 활용하였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곡사에서는 '불기 2570(2026)년 제77기 백범 김구(원종스님) 선생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는 조국 독립과 민족 화합을 위해 일생을 바친 백범 선생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의 삶 속에서 되새기기 위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고 한다. 마곡사에는 원종 스님이 머무시던 백범당(白凡堂)을 유지하여 백범 김구 선생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둘러 볼 수 있게 하고 있다. '백범 솔바람 길'은 소나무 숲을 따라 조용하고 고즈넉해서 힐링(healing)하기 아주 좋은 마곡사의 산책길이다.

김구 선생은 해방이 되자 1945년 11월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함께 환국하였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라며 1947년에 발행된 '백범일지'에 '나의 소원'이란 글로 남겼다.

'백범일지' 자필원본은 서거 후 1997년 6월 12일 대한민국 보물 제1245호로 지정되었다. "지금 인류에게 부족한 것은 무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다. 인류가 현재 불행한 근본 이유는 인의(仁義)가 부족하고 자비(慈悲)가 부족하며 사랑이 부족한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라며 오늘의 우리에게도 세상을 향해 사자후(獅子吼, 크게 부르짖어 열변을 토하는 웅변이나 강한 호통)하고 있다.

이제 세계인의 손으로 백범의 문화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유네스코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이를 확산하여 '백범 김구 탄신 150주년' 원년을 계기로 대한민국 문화융성의 해가 되어야 하겠다. 'K-컬처'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영화, 음악, 패션, 그리고 미술에서 놀라운 재능을 축적해왔고, 이제 세계가 그것을 발견했을 뿐이며 절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의 눈부신 융성이 이어나가 역사의 결실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니길 간절히 기원한다.

올 가을, 상생(相生)의 삶을 살자

안호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 미 크레이티브대학교 석좌교수)



'사랑은 무엇과 같을까?' "그것은 가난한 이들과 필요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며 그들의 불쌍함과 애처로움을 바라볼 줄 아는 눈이며 다른 사람의 한숨과 슬픔을 들을 수 있는 귀다."

성(聖)아우구스티노의 말이다. 요즘 사람들은 지독한 외로움으로 사랑을 절실히 원하면서도 사랑을 무척이나 두려워하는 것 같다. 간식을 먹듯 쉽게 헤어지는 아픔, 겁도 없이 함부로 내뱉는 '이혼' 소리. 그로 인해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친밀해지는 것 조차 두려워하며 얽매이지 않으려 한다. 더구나 요즘 세태는 사랑의 현실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며 사랑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 모두는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밥 먹듯 쉽게 내뱉기도 한다. '사랑'에 대한 필요성과 필연성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또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야 말로 온 인류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허다한 문제를 삭이는 묘약임에는 틀림없을 뿐더러 이 같은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 그 앎과 형식적인 구호만 난무할 뿐 정작 그 사랑의 실천에는 별로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불가에서는 "중생모두가 무지와 탐욕을 여의고 깨달음과 상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한다. 기독교계도 마찬가지. "이 사회가 맑은 사회가 되려면 서로가 섬긴다는 자세로 임해야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물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되 이기적인 내 뜻 대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면 잃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것을 얻게 된다"고 충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종교인들이 좋은 말씀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지만 어떤 연유에서일까, 이 땅에는 아직까지 진정한 봄이 오기에는 아직도 먼 것 같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삶을 매일 같이 계속하면서도 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이란 몇 살이 되든지 외로움을 느끼며 인간관계 속에서 살고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인간은 누구나 존재의 이유가 다 있으며 그 또한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주어진다. 풀이나 나무는 총생(叢生)하면 잘 자란다. 그리고 채소나 곡식 또는 묘목도 밀식(密植)하면 웃자란다고 한다. 따라서 삶도 여럿이 어울려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면 그 삶이 즐겁고 평화로우며 개인은 물론 조직이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생존경쟁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은 필수조건이기는 하지만, 남이 살아야 나도 산다는 이치를 망각해서는 안될것 같다.

공자는 '논어' 위정편(爲政篇)에서 마흔에는 세상일에 미혹되지 않고(不惑), 쉰에는 하늘의 뜻을 알며(地天命), 예순에는 귀(耳)가 순해져 남의 말을 너그럽게 듣고(李順), 일흔에는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從心)고 회고했다. 공자가 말한 종심(從心)의 본질 또한 자신을 엄격한 틀에 가두는 완벽함이 아니라, 오랜 삶을 지나며 비로소 얻게 되는 내면의 자연스러움과 온전한 자유일 것이다. 오랜 세월 우리는 이 구절을 나이마다 반드시 도달해야 할 '완성의 기준'으로여겨왔다.

하지만 평범한 우리에게 '마흔의 불혹'이나 '쉰의 지천명'은 아득히 높기만 한 벽일 뿐이다. 나이를 먹어도 여전히 작은 바람에 흔들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는커녕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 벅찬 것이 솔직한 인간의 참모습이다. 성인의 궤적을 맹목적인 숙제로 짊어지는 순간, 나이 듦은 성숙이 아닌 자책과 무게로 변질되고 만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외로움을 느끼고 노

여움속에서 존재감을 깨닫게 된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도인(道人)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속에서 저마다의 색깔로 '익어가는 과정'이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은 세상을 향해 얼마나 강한 주먹을 날리느냐가 아니라, 아픔을 묵묵히 견뎌내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느냐의 싸움인지도 모른다. 완벽한 현인(賢人)이 되지 못한다고 해서 세월의 가치가 바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어찌하다 보니 여든(傘壽)의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다. 종착역도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

누군가 "사는 것이 숨박꼭질하는 것 같고, 그리고 보일 듯 보이지 않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게 어쩜 인생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던 것이 어렴풋 떠오른다. 우리 모두가 꽃처럼 웃고 새처럼 노래하며 구름처럼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해본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도 서로의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어, 문득 생각나고, 또 보고 싶고, 가만히 그리워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보다 더 따뜻한 행복이 어디 있겠는가!

좋은 사람을 찾기보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될 때 모두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신이 우리에게 '망각'이란 선물을 준 것이다. 모든 것을 잊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기 때문이다.

올가을에는 남과 비교 하기보다 감사하고, 미워하기보다 이해하며 사랑하고, 받기보다 먼저 마음을 베푸는 그런 가을의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리고 세상에 정답도 없다

박수철 (예 대령, 공사 33기)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유래를 찾아보면 동서양 양쪽에 모두 일화가 남아있는데, 이를 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각은 참 비슷했구나 싶다.

먼저 동양의 유래를 보면, 중국 요순 시절 어느 왕이 백성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글을 지어 올리라고 명령했다. 전국의 학자들이 모여 12권의 책을 엮어 올렸지만, 왕은 "먹고살기 바쁜 백성들이 언제 다 읽겠느냐"며 분량을 줄이라고 지시했다. 학자들이 한 권으로 요약해 다시 보고했음에도, 왕은 내용이 어려우니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으로 만들라고 명했다. 오랜 토론 끝에 학자들이 만들어 올린 문장이 바로 '세상에 공짜는 없다'였고, 왕은 크게 흡족해하며 백성들이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도록 했다고 한다.

한편, 서양에서는 이 말이 19세기 미국 서부의 술집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술집들은 손님을 끌어모으기 위해 '무료 점심'을 제공한다고 홍보했지만, 사실 그 밥값은 이미 비싸게 책정된 술값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었다. 훗날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이 문구를 널리 알리면서, 오늘날 이 말은 '모든 선택과 결과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보편적인 진리로 쓰이고 있다.

동서양을 관통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는 내가 살아온 지난 삶을 돌아볼 때마다 새삼 실감하게 된다.

푸른 제복을 입고 하늘을 벗 삼아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40여 년의 군 생활. 그 긴 시간 동안 땀방울과 눈물 없이 거저 얻어진 것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온몸으로 부딪치며 깨달은 삶의 지혜와 경험들이 귀하게 느껴져서, 한때는 갓 군복을 입은 후배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곤 했다. 나의 경험이 그들의 시행착오를 조금이나마 줄여주길 바라는 노파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사천 기지에서 비행 교수로 일하던 시절, 조종 학생들을 모아놓고 내 경험담을 들려주며 그들의 앞길을 응원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또한 건방지고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고, 백 번 전해 듣는 것보다 한 번 직접 겪어보는 것이 훨씬 더 깊은 가르침을 준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킴벌리 커버거의 시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의 제목처럼, 현재의 혜안을 온전히 간직한 채 젊은 시절로 돌아가는 엉뚱한 상상에 빠지기도 한다. 만약 정말로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아마도 지금의 연륜을 무기 삼아 젊은 시절의 나보다 훨씬 더 능숙하고 완벽하게 군 생활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피할 수 있는 실수는 요령껏 피해 가며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든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비틀어보면, 미래를 훤히 아는 삶이 과연 축복이기만 할까 싶다. 앞날을 전혀 알 수 없었기에 과거의 나는 그토록 순수하게 부딪칠 수 있었다. 정해진 길을 몰랐기에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향해 무모하리만치 돌진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숱한 시행착오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다. 불확실성의 터널을 지나며 겪었던 뼈아픈 좌절, 그리고 마침내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의 가슴 벅찬 환희는 미래를 몰랐기에 온전히 내 몫이 될 수 있었다.

서툴고 투박했던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 한편으로는 '그때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하는 아쉬움과 탄식이 밀려온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그 무수한 실수와 눈물마저도 내 삶의 지층을 단단하게 다져준 눈부시게 멋진 추억이었다. 정답을 찾아 헤매던 그 서투름 자체가 빛나는 청춘의 특권이었던 셈이다.

결국 세상에 공짜가 없듯, 내 40년의 군 생활 역시 '청춘'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값진 훈장이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 완벽한 '정답'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는 몰랐기에 내 삶은 더 치열하고 아름다웠으며, 정답이 없는 길 위에서 나만의 해답을 개척해 올 수 있었다.

게다가 내가 완벽한 정답이라 믿었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나이가 들고 지혜가 쌓이며 생각이 깊어질수록, 삶의 정답에 대한 기준도 자연스레 바뀌기 마련이다.

공짜가 없는 세상에서, 정답이 없는 삶을 묵묵히 땀 흘려 살아온 과거의 나. 그 치열했던 발자취 속에서, 앞으로도 묵묵히 나만의 길을 걸어갈 미래의 내 모습이 보인다.

바닷속 구경

이윤우 (예 소령, 공사 6기)



3백살 먹은
거북이 따라
숨은 바닷속
구경가요

미역 다시마 둥둥
바닷숲을 아루고
어류들의 안식처
50여종의 해초들

새우 고등어 둥둥
형형색색
3만여종의 어류들

잠수부 만이 즐기는
바닷속의 아름답고
화려한 풍치

땅위의 지상낙원
누구나 관광으로
즐기지만

바닷속 수중낙원
즐길 관광
꿈만 같네



[기획연재 : 고전에서 얻는 지혜] 군자삼락(君子三樂)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

윤우 (예 소장, 공사 28기, 사단법인 국어고전문화원 명예이사장)



맹자는 전국시대의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이익을 탐하지 않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루 상편에 "도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 먼 데서 찾고, 일이 쉬운 곳에 있는데 어려운 데서 찾는다. 사람마다 어버이를 친애하고 연장자를 받들면 천하가 화평할 것이다.(道在爾而求諸遠 事在易而求之難 人人親其親 長其長而天下平)"라 했고, 진심 상편에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첫째는 부모가 살아계시고 형제가 무고한 것, 둘째는 하늘과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 셋째는 천하 영재를 얻어 가르치는 것이며, 왕 노릇은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君子有三樂 父母俱存兄弟無故一樂也 仰不愧於天俯不怍於人二樂也 得天下英才而教育之三樂也 王天下不與存焉)"고 했습니다.

참된 즐거움은 멀리 있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고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군자삼락을 오늘날에 대입해본다면 그 첫 번째는 좋은 가족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세상에서 무조건 내 편이 되어주고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위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떳떳한 마음에서 오는 안정감입니다. 바른 가치관과 선한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이라고 노래한 청년 윤동주는 엄혹한 일제 치하에서도 결코 불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데서 오는 보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더 작은 아이를 보살피면서 흡족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면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때 행복감을 느끼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꼭 영재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할 때 자신도 즐거운 것입니다.

맹자는 부와 권력을 가진 왕이라고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부귀영화가 가져다주는 행복은 짧고,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트로이의 목마

이영하 (예 중장, 공사 22기, 전 레바논 대사)



성문 앞에 놓인 말 한 필,
전쟁은 그것을 선물이라 불렀다.

트로이 사람들은
긴 싸움이 끝났다고 믿으며
자기 손으로 성문을 열었다.

밤이 깊자 목마의 배 속에서 발소리가
내려왔다.
믿음이 열어 준 문으로 칼이 먼저 들어
왔다.

나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무너진 성벽보다 사람들이 열어 준 문을
오래 바라본다.

적의 칼은 바깥에서 오지만
파멸은 때로 의심을 거둔 마음속으로 들
어온다.

오늘도 세상에는
달콤한 말로 포장한 목마가 있고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선물이 있다.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을 끝까지 살펴야 하는가.

평화는 성문을 닫는 일만으로 오지 않는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되
그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함께 물을 수 있을 때 시작된다.

성 안에 목마를 들이지 않는 지혜,
그보다 먼저 사람을 속이지 않는 세상.

하늘이 말을 건네는 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하늘은 비로소 입을 연다.
언어가 아닌 빛으로
설명 대신 떨림으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질문들
끝내 묻지 못한 이름들
돌아오지 않은 마음들에 대해
하늘은
말 대신 흔들린다.

오로라는
대답이 아니라
응답이다.

신이 침묵한 자리에
자연이 남긴 문장
인간이 끝내 포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빛의 음성

그 밤
하늘은 위에 있지 않았다.
우리의 안쪽에서
조용히 말을 건넸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남아 있다고



국방표준화저널(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3호 발행 안내

대한민국 K-방산의 약진과 함께 국방표준화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와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에 도움을 주고자 (사)한미자유안보정책센터(KAFSP)에서 지난 6월 창간한 '국방표준화저널(DEFENSE STANDARDIZATION JOURNAL)' 3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2019년에 작성된 각종 표준화 문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러-우 전쟁을 비롯하여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에서 크게 부각된 AI 및 Drone 코너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저널은 파일로 자유롭게 공유(링크 주소: www.kafsp.com/dsj) 가능하며, 아무쪼록 본 저널이 한국군과 방산업체 임직원들의 국방표준화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합니다.

구독 및 후원 문의 : 편집장 백현봉 Mobil. 010-5073-2652, E-mail. purehb@hanmail.net



장교/준사관/부사관/군무원(정기 공/경채, 장애인 구분모집)

공군 간부 모집 포털 전환 안내

기존 공군 간부 지원 홈페이지 대한민국 공군모집 포털은 신규 국방통합모집 포털로 전환됨에 따라
지원 접수가 불가하며, 아래 신규 국방통합모집 포털에서 진행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recruit.mnd.go.kr